

퓨어스토리지, IDC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시스템 보고서에서 톱 5 벤더로 선정

- 퓨어스토리지, 시장 평균 매출 크게 웃돌며 급성장

2020년 6월 23일 - 멀티-클라우드 환경에서 구독형 스토리지(storage as-a-service) 모델을 제공하는 IT 선도기업 퓨어스토리지(www.purestorage.com/kr, 지사장 배성호)가 외장 스토리지 업계 평균 매출을 상회하며, 시장조사기관 IDC가 최근 발표한 2020년 1분기 '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시스템 추적 보고서(Worldwide Quarterly Enterprise Storage Systems Tracker)'에서 해당 분야 톱 5 벤더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.

IDC에 따르면, 1분기 퓨어스토리지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.7% 성장한 반면, 전체 스토리지 시장 평균 매출은 8.2% 감소해, 퓨어스토리지의 성과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. 또한, 외장 스토리지 분야에서 유일하게 성장한 부문은 퓨어스토리지가 속한 올플래시 어레이 부문으로, 하드 드라이브 스토리지는 18%, 하이브리드 어레이는 11.5% 감소했다.

퓨어스토리지의 찰리 잔칼로 CEO는 "IDC의 '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시스템 추적 보고서'에서 퓨어스토리지가 톱 5 벤더로 선정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"며 "이러한 성과는 특히 지금과 같이 중요한 시기에 고객이 퓨어스토리지 솔루션의 간소성, 안정성 및 유연성을 신뢰하고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입증한다"고 밝혔다.

한편, 퓨어스토리지는 최근 발표한 1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에버그린(Evergreen), 서비스형 퓨어(Pure as-a-Service) 및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(Cloud Block Store) 등의 자사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매출이 37% 증가하며, 전년 동기 대비 12% 증가한 3억 6710만 달러(한화 약 4460억 원)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.

###

퓨어스토리지 소개

퓨어스토리지는 전세계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. 퓨어스토리지의 데이터 솔루션은 SaaS,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업체, 엔터프라이즈 및 공공 부문 기업들이 모든 클라우드 환경에 걸친 핵심 운영 환경, 데브옵스 및 현대적인 분석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 퓨어스토리지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엔터프라이즈 IT 기업으로 고객들이 인공지능, 머신러닝 등 차세대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자사의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. 최근



NPS 고객 추천 지수에서 B2B 기업 중 상위 1%의 점수를 기록했으며, 전세계 고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.